



아그로 보드

‘폐농약 봉지류’ 수거 · 처리사업 실시

올해 9월부터 4개월간 전국 26개 시 · 군 대상, 시범사업 실시
2008년부터 전국 대상 본격 시행, 폐농약 봉지류 1,380원/kg

■ 업무부

그 동안 비교적 사용량은 많지만 수거 ·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폐농약 봉지류가 올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거 · 처리사업 시범 실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.

환경부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농약용기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시해 온 농약빈병 수거, 처리 사업에 폐농약 봉지류를 추가한 「2007년도 폐농약 수거 · 처리 시범사업 및 2008년도 폐농약 용기류 수거 · 처리사업 계획」을 수립,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먼저 「2007년도 폐농약 봉지류 수거 · 처리 시범사업」은 전국 26개 시 · 군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4개월) 실시된다. 지역을 살펴보면 △경기도 화성시, 평택시, 이천시 △강원도 홍천군, 철원군, 평창군 △충북 충주시, 청원군, 영동군 △충남 서산시, 논산시, 당진군 △전북 익산시, 전주시, 정읍시 △전남 영광군, 영암군, 무안군 △경북 의성군, 영주군, 영양군 △경남 하동군, 양산시, 밀양시 △제주 서귀포시, 제주시 등이다.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폐농약 봉지류에 대한

수거 · 처리 계획량은 홍보부족 및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,656천개로 하며 소요되는 사업비 120,841천원은 작물보호업계가 전액 부담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 · 처리를 맡기로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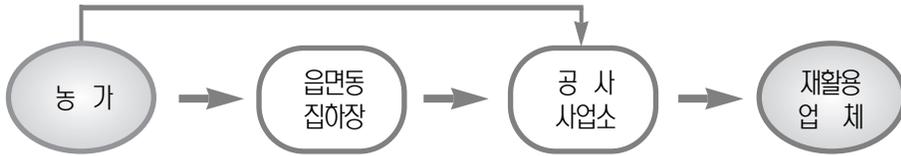
또 폐농약 봉지류 수거처리사업이 본격화 되는 「2008년도 폐농약 봉지류 수거 · 처리 사업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처리계획량은 사업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16,562천개로 하고, 수거 · 처리 비용은 868,511천원으로 확정했다. 다만, 2008년도 사업비(수거보상금)는 국가(30%), 지자체(30%) 및 작물보호업계(40%, 347,404천원)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같으며 수거 · 처리 주관은 역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맡는다.

용기별 수거비 지급 기준을 보면 △유리병 150원/kg, △플라스틱병 800원/kg, △봉지류 1,380원/kg이며 병류는 재활용업체에, 봉지류는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, 처리하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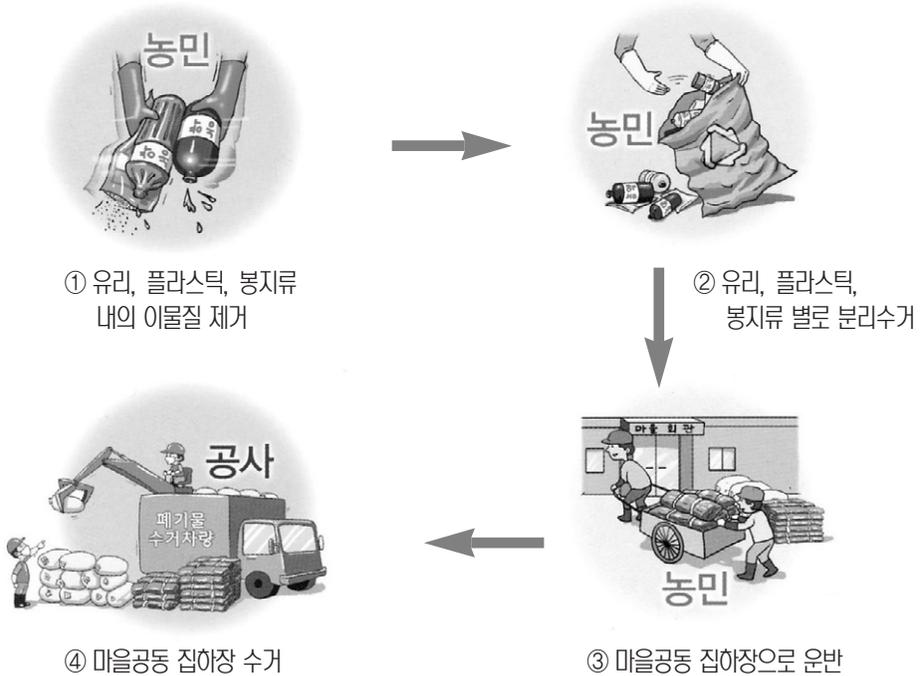
농약용기 중 유리병과 합성수지병은 1989년부터 수거,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, 봉지류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. 

폐농약 용기 수거처리 방법

♣ 수거처리 체계



♣ 적정배출을 위한 농민 실천사항



♣ 수거비 지급

공사에 수거된 수량에 따라 지급 · 유리병 : 150원/kg · 플라스틱병 : 800원/kg · 농약봉지류 : 1,380원/kg	계좌로 입금
	공사 → 농민